김금수의 길찾기

모나면 멈추고 둥글면 구른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현 시기 노동운동을 두고 '위기'라고 말하지 말자.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 도정에서 역경과 마주하지 않은 순경의 시기가 얼마나 있었던가. 산업혁명 초기의 극악한 착취와 억압 속에서 출발한 노동운동은 독점자본의 집중 공격을 헤쳐 나왔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시기와 파시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혁명의 선두에서 피흘리며 투쟁해야만 했다. 현대 자본주의 아래서도 완강한 반동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천신만고의 지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위기국면 아래서 고양과 비약의 단계를 맞았던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제도의 위기가 결코 노동운동의 위기일 수는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의 노동운동은 숨이 목에 찰 정도로 가파른 고개 위에 서 있다. '실업대란'이 바로 눈앞에서 처참한 형태로 덮어지고, 임금은 제 값어치를 턱없이 떨어뜨린 채 생계를 목조이고 있다. IMF의 '자본 세계화' 움직임과 국가권력의 '신자유주의'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노동현장은 자본의 공세로 살벌하게 변해 가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 진영에게 분명히 버거운 도전이다. 이런 도전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몹시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를 맞았다고나 할까.

고난을 이겨내는 간부는 의연하다

이런 때 고대되는 것이 노동운동 지도자와 간부들의 책임있는 역할과 자세이다. 지도자와 간부 대망론이 나올 법한 시절이다. 노동운동이 어려움에 놓인 때일수록 빼어난 지도자와 간부가 더한층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전진을 떠밀고 나가는 것은 사람이기에, 시련을 딛고 미래를 여는데 앞서 가는 사람의 책무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책무를 수행하는 지도자와 간부야말로 진실로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연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자기 개혁운동 펴야

87년 노동항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간부들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간부로서 자질과 소양을 쌓은 사람들도 많다. 말하자면 이들이 노동운동을 이끌 역군들이다. 이제 이들 간부들은 스스로를 냉철히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가 선 위치를 정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 현실이 엄중하고 지도자와 간부들의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터이지만, 근래 들어 노동운동이 주요한 고비들을 겪으면서 운동기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파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알게 모르게 깊이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협조주의 또는 개량주의가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좌익편향 또는 모험주의마저 운동진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내부 분열의 소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운동 풍토가 점점 척박해 지고 있다는 느낌을 토로하기도 한다. 간부들이 활동을 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된다. 척박한 풍토에서는 건강한 유실수가 자라기 어려운 이치이고 보면, 노동운동이 일대 자기개혁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판이다.

따지고 보면,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으로서 자기 특성을 안고 있다. 사상, 신조, 이념,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나 주장, 요구, 이해의 편차는 다양하고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공통된 처지와 요구 그리고 이해관계를 통해 단결과 투쟁이 이루어지고 계급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개되어 비로소 노동운동이 자기논리를 관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간부는 노동운동 발전의 추진력이다.

대중 속에서 대중 속으로

지금의 노동운동을 두고 '침체 국면'으로 보는 데는 아마도 내부 조건이나

주체 상황을 크게 떠올리고 있는 듯 하다. 조직률이 줄고 기업별 노조형태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한편, 사회개혁 투쟁을 공동투쟁 또는 통일투쟁의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운동 이념이나 노선이 확고히 정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세력화의 전략 목표 확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 있다. 지도역량의 한계와 간부 자세의 경직성 또는 무원칙성이 운동의 겉면에 부각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상식일지는 몰라도, 노동현실이 무척이나 각박해지고 노동운동이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도자와 간부의 책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타고난 운명과도 같이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오늘의 현실과 상황이 간부들의 자세 재정립을 강요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대중노선의 철저한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 "현장의 실정과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맞는 말이다. 현장이야 말로 운동의 거점이고 투쟁의 최일선이기 때문이다. '구두 수선장이 셋이면 제갈량 보다 낫다'는 말이 표현하듯 대중은 조직하기에 따라 위대한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그것은 '대중 속에서'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요구와 주장을 집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통을 통해 토의하고 원칙에 맞게 다듬어 다시 대중 속에 전달하여 대중의 의견으로 만들고, 이를 대중의 행동 속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대중 속으로'를 '대중 속에서'와 함께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부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요구와 견해를 집약하고 그것을 체계적인 원칙과 방법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또 행동원칙과 방침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합내 민주주의 실현을 이끄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 대중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계급성과 투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조합 민주주의이다.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조합민주주의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민주주의적 사업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조합 민주주의는 단순한 형식민주주의 원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집중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민

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의기구의 결정이나 지도부의 방침이 지켜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결의와 방침 그리고 지시에 대해서는 철회와 수정 등의 의견은 폭넓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와 집중의 실질적인 집행에서 지도자와 간부의 책임은 클 수밖에 없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일상화하자

노동운동 지도부에서부터 일선 간부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비판과 자기비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사업과 활동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비판의 주요 임무이다. 그런 점에서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판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고, 투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이다. 그래서 활발한 비판 없이는 노동운동 발전과 간부 성장을 위한 길은 막히게 된다. 자기비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기 결함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잘못을 숨기려고만 든다면, 결함과 오류는 시정되기 어렵고 활동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 서로 봐주기식의 가족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간부들은 모름지기 일상으로 사업과 활동을 점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와 결함에 대한 비판과 자기비판을 과감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간부의 자세 전환에서 또 한가지 요구되는 것이 학습이다. 노동운동 발전에 필요한 이론은 실천을 위한 무기이고, 그 이론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사실 간부들이 학습할 시간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처지에서는 변명처럼 들릴는지 모른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일반조합원들이 학습모임을 만들어 열성껏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뒤처지게 될 뿐이다. 남의 머리를 결코 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 지도자와 간부는 노동자 대중 속에서 솟아 나오다시피 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특유한 품성을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품성은 소박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용감하다. 이런 품성의 체현이야말로 대중을 푸근하게 안을 수 있고 척박한 풍토를 옥토로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굽힘 없는 전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간부들에게 영광이 안겨지길 바란다. ❖